

포스트 메모리 세대와 5·18

- 박솔피의「그럼 무얼 부르지」와 한정현의「쿄코와 교지」를
중심으로 -

조연정*

〈차 례〉

1.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2. 번역된 '광주' - 박솔피의「그럼 무얼 부르지」의 경우
3. 기록과 기억 사이의 '광주' - 한정현의「쿄코와 교지」의 경우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5·18은 1980년대 이후 다양한 방식의 서사화 과정을 거쳤다. 왜곡되고 은폐된 사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기억투쟁의 작업으로서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극사실적으로 복원되기도 하였으며, 5·18에 대한 재현(復)가능성과 윤리가 첨예하게 사유되기도 하였다. 2010년대의 초반에 쓰여진 일련의 광주 재현의 서사들은 당시 한국 사회의 정치적 퇴행에 대한 저항의 작업들로 의미화되기도 하는데, 이들 소설이 강조하는 정념은 죄책감에서 복수심 등으로 진화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광주 이후 태어난 포스트 메모리 세대의 작가 박솔피와 한정현의 소설을 읽으며 광주 재현의 서사가 동시대성을 띠며 진화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박솔피의「그럼 무얼 부르지」는 광주를 다루는 서사 중 예외적으로 피흘리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소설이다. 이 소설이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은 '광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포스트 메모리 세대 '나'의 당혹감과 난감함이다. 이러한 난감함은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광주'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막연한 거리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비당사자 세대가 지닌 최소한의 윤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정현의「쿄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코와 교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광주의 피해자들이기도 하지만 고질적인 젠더 부정의, 견고한 성별 이분법,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신화의 피해자들이다. 결국 이 소설은 ‘오월 광주’가 예외적인 비극이기도 하지만 혐오와 차별의 인간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비극적 사건을 통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소설이 광주에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 이기보다는 이제는 더이상 ‘말할 수 없는’ 당사자들을 대신한 기록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교코와 교지」는 ‘오월 광주’의 비극이 결코 화석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사자와 비당사자, 즉 광주를 직접 체험한 세대와 포스트 메모리 세대 사이의 간극을 흐린다.

박솔피와 한정현의 소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광주를 구심점으로 하는 다종의 ‘연결’에 관한 것이다. 박솔피의 소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디서든 ‘광주’와 마주할 수 있다는 우연들을 통해 ‘광주 이후’ 세대에게 ‘오월 광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다. 한정현의 소설은 광주 이전과 이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혐오와 배제의 인간 역사를 그려내면서 ‘오월 광주’를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일이 요청되는 이유를 설득적으로 제시한다. 포스트 메모리 세대가 그리는 광주 재현의 서사들은 적어도 ‘오월 광주’를 화석화하거나 신화화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어] 5·18, 재현, 포스트메모리 세대, 당사자와 비당사자, 번역

1.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한정현의 소설 「교코와 교지」¹⁾에서 5·18에 대한 소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 강사 ‘영소’는,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갓 스무 살이 넘은 나이로 5·18을 목도한 자신의 엄마에게 “자꾸만 광주에 대해 묻”는다. 영소의 질문에 엄마인 ‘경자’가 무심히 건넨 말은 “인터넷을 찾아보라”(71쪽)는 것이다. 1980년 광주에서 비극적 참사가 일어난 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태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5·18은 이처럼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거나 술한 영화·소설의 소재이거나 어쩌면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그 참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로 남은 것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찾아보라며 대답을 꺼리는 엄마에게 영소는 “그냥 ‘사람들’이 궁금”(71쪽)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박솔피의 「그럼 무얼 부르지」²⁾에서 ‘나’는 버클리 대학 앞의 한 카페에서

1) 한정현, 「교코와 교지」, 『문학과사회』, 2021년 봄호. 본 논문에서 이 소설을 인용할 경우 출처는, 한정현, 『교코와 교지』, 문학과지성사, 2023을 따르며, 인용한 페이지수는 본문 안에 표기하도록 한다.

“5·18 재단에서 만든 영어로 된 자료와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프린트물로 ‘May 18th’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임에서의 A4 서 너장 분량의 발제문으로 접한 5·18은 “마치 영어가 사건에 객관을 주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명백하고 비교적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처럼”(129쪽) 여겨졌다. 한국의 지도 안에 “서울의 남쪽 부산의 서쪽”에 있는 광주의 지리적 위치가 명확하듯, 그곳에서 30년 전에 일어난 5·18 역시 “massacre”와 “brutal”이라는 단어로 어찌면 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잔인한 학살’이었던 것이다. ‘오월 광주’에 대해, 정작 광주 출신의 “나는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128쪽)지만 것처럼 의외의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마주한 ‘오월 광주’의 실재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도 했다.

1980년 당시에는 ‘광주사태’라는 명명을 통해 폭도들의 반국가적 난동 행위로 왜곡되었으며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 ‘광주민중화운동’이라는 실제에 적합한 이름을 부여받은 5·18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5·18은 당시 정권 장악을 시도한 신군부가 12·12로부터 5·17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기획한 “다단계 쿠데타(multi-stage coup)”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권과 민중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해 ‘진압기계’로 훈련된 공수부대에게서 전시적 폭력을 이끌어낸 것이 5·18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광주에서의 이 같은 잔혹한 진압은 이후 13년 동안 지속된 군사정권을 가능하게 한 ‘원-폭력’이었음과 동시에, 이 정권에 대한 시민의 ‘원-저항’의 원천이기도 했음은 물론이다.³⁾ 1980년 당시 곧바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못했다는 이유로 ‘성공한 쿠데타’이자 ‘실패한 항쟁’으로 인식된 5·18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도 이

2) 박솔피의 「그럼 무얼 부르지는 『그럼 무얼 부르지』(자음과모음, 2014)에 실렸으며, 이 책은 2020년에 민음사에서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 소설을 인용할 경우, 개정판의 페이지수를 본문 안에 표기하도록 한다.

3) 김형, 「국가의 적이란 무엇인가?」, 김형중·이광호 엮음,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문학과지성사, 2020, 189쪽.

해된다. 1987년의 6월 항쟁이 유혈 사태없이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7년 전의 ‘광주’가 전두환 정권의 군사력 동원을 불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광주에서의 이 같은 비극적 사태에 대해 그간 다양한 경로로 그 진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다양한 자료들이 축적되었고 광주항쟁을 분석하는 다수의 담론들이 제출되었으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형용 불가능한 비극은 얼마간의 복원과 어느 정도의 의미화가 완료된 사건으로, 정해진 날짜에(만) 특별히 기억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잊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5·18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제껏 우리는 진실과 처벌 중 그 어느 것에도 온전히 다가가지 못했다”⁵⁾는 곽송연의 주장처럼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완벽하게 답해줄 수 없는 질문들은 산재해있다. 왜 누군가가 그곳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영원히 마땅한 답변을 내릴 수 없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5·18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태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파악하는 일도, 온전한 처벌을 완료하는 일도 애초에 불가능한 것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이 불가능은 ‘진실과 처벌’을 위한 행위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교코와 교지」의 영소처럼 ‘사람들’에 관심을 가질 경우, 우리는 5·18을 가해와 피해의 행위, 선과 악의 구도, 역사적 사실의 인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개개인의 경험과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곽송연은 5·18 연구에서 가해자의 학살 동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5·18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실제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직접 당사자인 문자 그대로의 가해자와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일반 군인들을 구분하는 현실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⁶⁾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월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

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 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제50권2호, 2007.

5) 곽송연, 「그들은 어떻게 학살의 가해자가 되었을까?」, 『오월의 정치사회학』, 오월의봄, 2023, 59쪽.

변화는 중요하게 요청된다.

박솔피와 한정현의 소설은 이른바 포스트 메모리세대가 그리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들의 작품에서 광주는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아일랜드의 피의 일요일이나 칠레의 피노체트가 저지른 일”(129쪽)처럼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역사적 사실로 객관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소설에서 어김없이 중요하게 그려지는 것은 광주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서울로, 오키니와와 교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30여 년의 시간들 속에서 서로 연결된다. 때로는 돌발적으로 또 때로는 필연적으로 확인되는 이들의 연결은 결국 이 소설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광주와 결코 무관한 존재일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운다. 광주 이후 우리가 누려온 특별한 안락은 물론, 그에 버금가는 유사한 실패들 역시 광주를 원점으로 하여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광주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18의 재현은 한국 문학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왜곡되고 은폐된 사태의 실상을 파헤치고 알리기 위한 기억투쟁의 과정으로서 5·18에 대한 문학적 복원이 시도되기도 했으며, 타인의 압도적인 고통을 다루는 문학의 윤리가 5·18의 재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유되기도 했다. ‘오월 광주’에 대한 사회학 분야의 대표적 업적으로 읽혀온 『오월의 사회과학』(풀빛, 1999)의 저자 최정운은 자신의 연구의 많은 부분이 임철우의 『봄날』에 빚지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으며⁶⁾ 2013년에 출간된 한강의 『소년이 온다』(창비, 2013)를 비롯하여 권여선, 이해경, 김경옥 등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작가들이 그즈음 동시적으로 발표한 광주에 관한 소설들은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퇴행을 비판하고 이후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예도하는 작업들과 공명하기도 했다.⁹⁾

6) 같은 곳.

7) 최정운·임철우, 「절대공동체의 안과 밖 - 역사, 기억, 고통 그리고 사랑」, 『문학과사회』 2014 여름호.

8) 권여선의 『레가토』(창비, 2012), 이해경의 『사슴 사냥꾼의 당겨지지 않은 방아쇠』(문학동네, 2013), 김경옥의 『야구란 무엇인가』(문학동네, 2013) 등을 언급할 수 있다.

9) 필자의 선행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권여선과 한강의 소설을 분석했다.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

이와 관련하여 김형중은 2010년대의 초반에 씌어진 광주에 관한 소설들에 공통적으로 ‘복수’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법적 판결이나 역사적 평가라는 “공적 처벌”에 호소하기보다는 “학살자를 직접 물리적으로 단죄하려는” “사적 복수”를 주요한 소재로 삼은 소설들에 주목하며 그는 5.18 소설의 정념이 “죄의식”에서 ‘복수심’으로 급격하게 이행해가는 (….) 어떤 시대적(혹은 세대적) 감수성의 단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¹⁰⁾ 2010년대의 초반에 비슷한 세대로 묶일 수 있는 작가들이 써낸 일련의 광주 소설들은 이처럼 광주 재현에 관한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세대적 감수성에 기반하여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른바 ‘광주2세대’라는 명명을 통해 ‘오월 소설’의 시대적/세대적 변화에 주목한 김형중의 논의를 숙고하며 김미정은 “문학, 예술의 문제는 선형적이고 영속적으로 자율화된 영역이 아니라, 제반 관계 속의 의식적, 무의식적이고 역동적인 교섭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충한다. 5월 광주 서사는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 당사자와 비당사자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¹¹⁾라는 문제로 확장해 사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며 이 글은 85년생 작가 박솔피와 한정현의 광주 재현의 소설을 겹쳐 읽고자 한다. 2011년에 발표된 85년생 작가 박솔피의 「그럼 무얼 부르지」는 광주를 다룬 당시의 다른 장편들과는 재현의 방식이 확연히 달라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2022년 발표된 한정현의 「교묘와 교지」와 함께 읽음으로써 이들 소설의 ‘세대적’ 성과가 비로소 뚜렷해지리라 기대한다. 이 글은 포스트 메모리 세대, (김홍중의 표현을 따르자면) 즉 “현장이 없는 세대”¹²⁾가 광주를 재현하는 방식을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관계 맺음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박솔피 소설에서 ‘광주’가

하는 일 - 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2014 참조.

10) 김형중, 「총과 노래: 2000년대 이후 오월소설에 대한 단상들」, 김형중·이광호 엮음, 앞의 책, 339~340쪽.

11) 김미정, 「미끄러지고, 다른 힘을 만들고, 연결되는 것들」(『문학들』, 2020년 봄호), 위의 책, 374쪽.

12) 김홍중, 「탈존주의(脫存主意)의 극장」, 『문학동네』, 2014 여름호, 97쪽.

세대와 공간을 넘어 ‘번역’되는 방식과, 한정현 소설에서 ‘광주’의 상흔이 ‘구술’을 통해 ‘생애사’의 관점에서 확장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5·18 40주기를 맞아 문학과지성사에서 발간한 『무한텍스트로서의 5·18』이라는 연구서는 5·18을 사회과학적·인문학적으로 탐구한 글들과 5·18을 다룬 문학작품과 영화 들에 대한 비평을 묶은 책인데, 5·18을 매개로 인문사회과학과 문학이 교호하는 장을 만들어본 시도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엮은이들은 5·18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5·18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화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무한의 시간이다. 5·18을 둘러싼 완전하고 올바른 역사는 없으며, 5·18을 대표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야말로, 5·18의 정치적인 상상력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다.”¹³⁾ 주지하듯 5·18은 당대의 은폐와 왜곡의 단계를 거쳐, 90년대 이후의 복원과 역사화의 단계를 거쳐, 현재 새로운 ‘번역’의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다. 위의 인용을 빌려 말하자면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5·18은 어떤 ‘정치적 상상력’의 원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글은 2010년대 초에 발표된 박솔피의 「그럼 무얼 부르지」와 2020년대 초에 발표된 한정현의 「교코와 교지」를 가로지르며 한국 문단에서 5·18의 정치적 상상력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범박하게 말해 이러한 시도는 ‘오월 광주’를 탈신화화함으로써 5·18의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모색하는 작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2. 번역된 ‘광주’ - 박솔피의 「그럼 무얼 부르지」의 경우

박솔피의 「그럼 무얼 부르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여행 중이던 ‘내’가 우연한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는 모임에서 ‘광주’를 접하게 된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교포들이 주를 이루던 그 모임

13) 김형중·이광호 엮음, 앞의 책, 4~5쪽.

에서 그날 ‘나’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해나’를 처음 만나게 된다. 그날 모임의 주제는 해나가 발제한 1980년 광주에 대한 것이었다. 그 후 가끔 메일을 주고 받는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첫 만남 이후 3년 만에 광주에서 재회하게 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해나가 광주를 방문하기에 앞서 광주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나’를 떠올린 것이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나’는 해나를 만나러 고향인 광주로 향한다.

1980년 5월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해에 광주에서 조우하게 된 해나와 ‘나’는 함께 밥을 먹고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특별히 공개된 구도청 안을 구경하고 구도심 안을 조금 산책한 뒤 맥주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광주는 조용했고 딱히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136쪽)는 것이 그날에 대한 ‘나’의 기억이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죄책감이나 분노 등 ‘오월 광주’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듯 보이는 포스트 메모리 세대의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광주와 조우하게 되고, 그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태도로 고향인 그곳에서 다시 한 번 ‘오월 광주’와 마주하게 되는 소설로 「그럼 무얼 부르지」를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월 광주’를 다루는 작품으로는 거의 예외적으로 이 소설에는 피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5·18과 직접 연루된 사람들, 즉 피해 당사자들이 등장하는 소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채우는 많은 문장들은 사실상 5·18과는 무관한 묘사들이다. “나는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128쪽),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131쪽),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37쪽) 등의 문장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이 소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월 광주’와 마주하게 됐던 때에 우연히 ‘나’의 눈에 들어왔던 사물 혹은 장면들에 대한 무심한 묘사를 반복한다. 버클리의 카페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마셨던 음료에 대한 묘사라든지(“그때 내 맞은편에 있던 머리 긴 여자애는 커다란 밀크셰이크를 시켰고 나는 카푸치노를 시켰다. 낮은 잔의 카푸치노의 맞은편에는 기다란 유리잔의 밀크셰이크가 있었다”(130쪽)), 광주의 한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마신 캔커피에 대한 묘사라든지(“검은 색 캔

에 흰 글쓰기로 BLACK이라고 쓰여 있었다. 네가 어떤 기대를 하든 나는 달지 않을 것이므로 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나는 너를 만족시키리라, 응변하고 있는 모양이었다”(142쪽)), 잠시 한눈을 팔거나 딴생각을 했을 때 눈에 들어왔을 법한 장면들이 의도적으로 상세히 묘사된다.

이 묘사들은 사실상 서사의 진행을 위해서도, 인물의 내면을 파악하는 데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문장들의 더미에 불과한데, 광주에 대한 소설이지만 ‘오월 광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듯이, 아니 ‘오월 광주’에 대해서라면 자신은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강조라도 하려는 듯이, 박솔피는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담들은 사실상 박솔피 소설 특유의 무심함의 전략으로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한데, 「그럼 무얼 부르지」가 당연히도 ‘오월 광주’에 대한 회피나 부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소설은 아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도 ‘오월 광주’가 그저 익숙해져버린 포스트 메모리 세대의 ‘나’는 외부의 시선에서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될 때 심리적 불편함 혹은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월 광주’에 대해서라면 “내 앞으로는 몇 개의 장막이 쳐져 있고 나는 그 앞으로 직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152쪽)이 ‘나’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의 ‘광주’는 어떻게 재현되고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나’는 ‘오월 광주’와 세 번 만난다. 앞 장에서 밝혔듯 버클리 의 한 카페에서 해나가 준비해온 영어 자료를 통해 광주 밖에서 광주를 처음 만난다. “그러니까 이때 한국은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들”(130쪽), 즉 영어로 전달되는 그 이야기들에는 “몇 개의 장막이 있”는 듯 읽혔다. “하지만 그 장막은 나에게만 있는 것으로 해나에게는 없는 것이었다.”(130쪽) 한국에서,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30여 년 전 있었던 일”(129쪽)을 번역된 언어로 듣는 일이 어색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이 고향이라는 이유로 어찌면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보지 못한 그 사건은, 한국의 남쪽에 있는 한 도시에서 30년 전에 일어난 ‘잔혹한 학살’로 매끄럽게 정리될 수 있었고 객관화될 수 있었다. 해나가 준비해온 영어로 타이핑된 김남주의 「학살2」라는 시도 “60년대

후반 멕시코나 칠레의 대학에 군인들이 들어섰을 때 그것을 숨죽이며 지켜 본 누군가가 쓴 것 같”이, 혹은 “게르니카에 대한 글”이나 “1947년 타이베이에 대한 글”처럼 “외국 사람의 시 같”(132쪽)이 읽히기도 했다. 광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찌면 태어난 순간부터 광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더더욱 그날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었던 ‘나’는, 다른 언어로 짧게 번역된 내용을 통해 광주가 오히려 명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가 의외의 곳에서 광주를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일본의 교토에서다. 교토의 시조역 근처 바에서 맥주를 마시던 ‘나’는 니혼슈를 끊어 마시던 60대 초반의 주인으로부터 “코슈 시티”라는 말을 듣는다. 어디서 왔냐고 물은 주인은 ‘광주’에서 왔다는 ‘나’의 대답에 “光州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134쪽)라며 알은척을 한다. 버클리에서 “May, 18th”로 읽었던 광주를 교토에서의 ‘나’는 일본인 남성이 티슈에 써준 “光州 City”라는 외국어로 또 한 번 접하게 된다. 이들은 물론 광주에 대해서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몇 마디가 오가지 않는 대화와 더불어 박솔되는 다음과 같은 묘사를 길게 적어 놓는다.

“너는 어디서 왔는데?”

“한국.”

“한국 어디?”

“어딘지 말해도 모를걸요?”

“어딘데?”

“광주. 서울의 남쪽. 부산의 서쪽.”

“아.”

그 사람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니혼슈 옆에서 끊고 있던 무를 건졌다. 장 안에서 달걀과 함께 끊고 있던 무. 무는 장과 함께 오랫동안 끊었기 때문에 짙은 갈색이었다. 정말로 짙은 갈색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장과 함께 오랫동안 끊었기 때문에’를 ‘장과 함께 오랫동안 끊어져야만 했기에’라거나 ‘장과 함께 오랫동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장과 함께 끊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이 짙은 갈색을 설명하려면 말이다. 그 사람은 건진 무를 작은 접시에 담아 내게 주었다. 자기 앞으로도 하나 놓았다.

“거기 어딘지 알아.”

“정말?”

“내 친구는 「코슈 시티」라는 노래도 만들었어. 이렇게 쓰는 거지?”

바 테이블에 놓여 있던 티슈 한 장에 볼펜으로 光州 City 하고 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노래냐고 묻자 그때 군인들이 이 도시로 와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다. 아, 나는 짧게 반응하고 다시 맥주를 마셨다. (134쪽)

버클리에서 들은 광주처럼 교토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들은 ‘코슈 시티/光州 City’에서의 일은 “그때 군인들이 이 도시로 와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것에 관한 이야기”로 역시나 깔끔하게 정리된다. 위의 대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옆 나라의 낯선 사람도 알고 있을 만큼 오월 광주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이라는 사실이거나, 그 비극성에 대해서라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충분한 공감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처참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장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나’의 덩덤한 반응에 가깝다. 인용된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광주’가 아니라 오히려 니혼슈 옆에서 냄비에 끓여지고 있는 무에 대한 상념이다. 광주를 체험하지 않은 이방의 시선에서는, 그리고 광주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감각으로는 광주가 그저 “60년대 남미의 이야기”처럼 비슷한 비극일 뿐일 수도 있다. 낯선 사람들끼리 “아” 정도의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대화 소재인지도 모른다. 60대의 일본인은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살아 있던 사람”(146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80년 이후에 광주에서 태어난 ‘나’는 “광주 사람이니까”(146쪽)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그 자명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광주에 대해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

사실 1980년 이후 ‘광주’라는 기표는 “서울의 남쪽, 부산의 서쪽”에 위치한

특정 도시를 투명하게 가리키는 말로만 쓰이기는 어려웠다. 이 글에서도 그렇지만 ‘광주’는 광주라는 공간과 1980년 5월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동시적으로 의미하는 기표로 쓰인다. 광주 출신의 ‘내’가 오월 광주에 대해서라면 언제나 “너는 광주 사람이니까 너도 다 아는 사람이지”(146쪽)라는 자동적인 반응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광주 출신의 ‘나’에게는 오히려 낯선 외부의 이러한 반응은, 광주에서 벌어진 정치적 학살(politicide)을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 한정해 신화화하고 타자화해 온 편견의 소산일 수 있다.¹⁴⁾ ‘오월 광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혹은 체험자의 피 흘리는 고통을 토로하지 않는 박솔피의 이 건조한 소설은 80년 오월을 광주의 외부로 이동시키면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해 본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세 번째 광주는 5·18의 30주기를 맞아 해나와 함께 방문한 광주이다. 그날의 광주가 다른 날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다. 도청 앞에서 열리기로 한 광주 시향의 연주는 우천으로 취소되었으며 특별히 개방한 구도청 안에도 사람은 몇 없었다. 2층의 “무거운 회색 복도”에는 해나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광주에 다시 돌아와 역사의 장소에 섰지만 특별할 것은 없었던 셈이다. 해나와 내가 함께 보낸 광주에서의 하루를 묘사하면서도 박솔피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풍경들에 더 주목한다. 그날 밤 해나와 함께 들어간 술집에서는 “그해에 서울에 있는 광장에서 부를 수 없게 된 노래”, “그 노래를 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노래를 들어서 뭐 해?”(140~140쪽)라며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의 기억에 오래 남은 것은 누군가가 쉬지 않고 “죽과 떡과 국수의 이야기”

14) 이와 관련하여, 5·18에 대한 대표적 해석으로서 ‘절대공동체’(최정운)와 ‘항쟁공동체’(김상봉)의 담론이 광주에 대한 신화화 혹은 타자화라는 편견의 소산일 수 있음을 지적한 논의를 음미해볼 수 있다. 박송연에 따르면 최정운의 ‘절대공동체’론은 “지역주의, 계급과 같은 사회문화적 인식을 어떤 일탈적 정치 현상의 유일한 설명도구로 삼”음으로써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김상봉의 ‘항쟁공동체’론은 결국 “오월의 광주 혹은 전라도가 본래부터 정치적 각성이 뛰어난 지역이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5·18의 과정과 결과를 오히려 그것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또 하나의 신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박송연, 앞의 책, 136~139쪽.

를 계속 했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날 그곳에서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보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들만 지속되었던 것처럼 그려진다. 그저 평범한 날의 일상같은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지만 그러한 상세한 묘사들은 5월 봄밤의 ‘광주’라는 시공간을 오히려 생경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럼 무얼 부르지」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익숙한 공간이 결국 ‘나’에게는 어쩌면 영원히 평범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감각일지도 모른다.

해나를 만난 곳은 광주였다. 광주의 그 밤에 특별히 크게 소리 내어 무언가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우리가 오래오래 들어야 했던 것은 떡과 죽과 국수의 이야기뿐이었다. 그 사람은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없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했다. 마치 이야기가 끊어지면 안 될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 후로 꽤 긴 시간을 보내지만 그토록 떡과 죽과 국수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다. (...) 바에서 데운 술을 마시던 사람의 붉은 얼굴이 기억난다. 그 사람은 내게 너는 광주 사람이지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옆에 누가 있길래도 한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린 쪽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광주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자 고개를 돌렸는데 꼭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랬다.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이야기를 듣자 데운 술을 마시던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할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다는 듯이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내게 너도 광주 사람이지 하고 말했는데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아득함을 느끼고 고개를 휙 돌리고 반응도 하지 않고 맥주만 마셨다. (149~150쪽, 밑줄은 인용자)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광주’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나’는 광주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광주 사람이 아닌 것만 같다고 느끼는 사람, “너도 광주 사람이지”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아득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다. 이러한 진술들이 당연히 ‘광주 이후’ 세대의 무관심이나 심정적 부인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물론 저 ‘아득

함'의 정체는 쉽게 규정될 수 없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137쪽) 말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더불어 현장에 없던 세대가 느끼는 윤리적 압박감, 나아가 광주라는 기표에 대한 외부적 규정에 대한 거부감 등 많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이제껏 광주를 다루는 소설들이 어느 정도는 전형적으로 피해자의 서사에 집중하면서 국가폭력으로서의 5·18을 고발하고 그것과 연루된 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일에 오랫동안 집중해왔다면 박솔피의 소설은 5·18의 재현 불가능을 세계사적인 혹은 세대 간의 '번역'의 문제로 확장하면서 5·18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낸다. '광주 이후' 민주화 시대를 맞은 한국에서 엄밀히 말해 '광주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광주 사람이 아닌 것만 같다'는 감각이 점점 '광주 사람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라는 '비당사자' 세대의 개념과 무관심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무얼 부르지」가 제기하는 문제는 의미심장하다. 포스트메모리 세대가 그리는 광주는 '우리가 광주에 대해 무얼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놓는다.

여전히 은폐되어 있는 진실들을 모으고 아카이빙함으로써 5·18을 그와 연루된 개별자들의 시선으로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일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국가폭력의 위법성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일도 완료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문학적 작업들이 국가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며 당사자의 삶 전반을 비극적으로 단정하거나¹⁵⁾ 5·18을 과도하게 신화화하여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치를 사유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면¹⁶⁾ 5·18의 의미를 오히려 역사적으로 화석화하며 부정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부러 전시하지 않는 형태로도 '오월 광주'에

15) 5·18 체험자의 삶 전반을 피해자의 비극적인 삶으로 치환하는 작업들은 1980년 이후 이들이 기억투쟁의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지훈, 「한국 5·18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2, 4-6쪽 참조.

16) 이러한 이유로 김정환은 최정운의 '절대공동체론'으로 인해 5·18이 "세속의 정치를 초월한 '반정치'의 신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살피고 있다. 김정환, 「절대공동체, 반(反) 정치의 신화」, 『사회과학연구』 20권 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105쪽.

대한 각자의 윤리 감각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아가 ‘오월 광주’는 그때 그곳에 있었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외부 혹은 이후의 비당사자들에게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비극임을, 박솔피의 소설은 ‘번역된’ 광주를 통해 새롭게 확인시키고 있다. 결국 이 소설은 광주를 어떻게 번역 혹은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설로 읽힐 수 있다.

3. ‘기록’과 ‘기억’ 사이의 ‘광주’ - 한정현의 「쿄쿄와 교지」의 경우

박솔피의 소설이 ‘광주’를 구심점으로 하는 우연한 만남들에 주목한다면 한정현의 「쿄쿄와 교지」는 돌림자를 공유하는 경자, 미자, 혜자, 영자의 비극적인 우정과 사랑을 그리며 ‘광주’가 매개가 되어 연결되는 ‘사람들’에 주목한다.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네 명의 친구들은 갓 스물을 넘긴 나이로 5·18을 겪었다. 이들 중 한 명인 ‘혜숙/혜자’는 광주의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군인이 되어 있었던 ‘영성/영자’는 몇 년 뒤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수녀가 되었던 ‘미선/미자’는 그곳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뒤 며칠 만에 머리가 하얗게 센 정신이상의 노인처럼 되어버렸다. 서울에서 재수 학원을 다니던 ‘경녀/경자’만이 그날 광주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사히’ 살아남았다. “아무것도 보지 않”(75쪽)은 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른” 채로 경자는 죽은 친구가 남긴 아이를 자신의 딸로 키우며 오키나와에서 그들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낸다. 경자의 손에 키워지는 죽은 혜자의 딸 영소는 5·18 연구자가 되어 있다.

이 소설은 ‘오월 광주’의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과 이후의 삶을 살아낸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 형태로 써 내려간 김경자의 기록이다. “35년이 지난 다음에”야 영소가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는 경자는 조기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모래 장난을 하고 있는 어린 영소와 함께 있는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인식하며 과거와 미래의 착란 속에서 이야기를 적고 있다. “사람들은 나보고 인지 장애니 초기 치매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날 내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었다나요?”(61쪽)라고 말하는 경자는 자신에게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과거가 이어지는 것”(61쪽)이라고 말한다. 경자의 기록을 통해 이 소설은 과거에서 미래로, 그리고 광주에서 오키나와로 강력하게 ‘연결’되는 관계들에 대해 말해본다.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후 경자의 삶에는 ‘오월 광주’라는 구심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경자의 편지는 그녀가 “모부”로부터 받은 경녀(京女)라는 이름을 스무 살이 되어 경자(京子)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던 장면에서 시작한다. 경녀가 경자가 되고, 또 교코(きょうこ)가 되기까지 경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돌림 자로 엮인 네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들의 후손인 영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경자의 기록 뒤에는 “이것은 교코라 불렀던 교지 상, 김경자 씨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김영소의 기록”(87쪽)이 에필로그처럼 붙어 있다. 「교코와 교지」는 ‘오월 광주’의 현장에서 입은 피해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결국 희생자 가족의 기록을 통해 증언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이 죽기 전까지 그와 함께 살았던 경자는 “다 잊고 살아가”(79쪽)라는 영성의 유언을 지키지는 못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딸에게 편지로 남긴다. 영소가 광주 희생자의 남겨진 딸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삶도 광주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 포스트 메모리 세대 작가는 ‘오월 광주’의 희생은 물론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사람들’ 간의 연결을 통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 소설에서 편지 속 경자의 ‘증언’과 영소의 ‘연구’라는 설정을 통해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을 법한’ 것으로서 강조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1980년 광주에서 네 명의 친구들에게 벌어진 일은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 5·18과 같은 참사를 다루는 소설에서라면, 그리고 실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참조했을 때에도, 흔치 않은 서사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소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광주 이후’는 물론 ‘광주 이전’에도 이 넷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아들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 대접을 받고 싶”(52

쪽)은 혜숙, 미선, 경녀의 바람을 따라,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62쪽)났지만 여자의 삶을 선택하고 싶은 영성에게 “흔한 여자 이름”(63쪽)이라도 붙여주고자, 개명을 시도한다. 그래서 혜숙은 혜자가, 미선은 미자가, 경녀는 경자가, 영성은 영자가 되었다. ‘아들 자’ 대신 ‘스스로 자’를 돌림자로 선택해서 “스스로의 공동체”(64쪽)를 만든 것이다.

이름을 통해서라도 왜 이 네 명의 인물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이 소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 네 명의 인물들이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크고 작은 폭력들이다. 성장기의 그들에게는 “피로 얽힌 가족”(49쪽)에 의한 폭력이 가장 직접적이었다. 전남대의대에 합격할 정도의 수재였던 혜숙은 걸핏하면 헛간으로 끌려가 오빠에게 얼굴을 맞기도 했는데, 결국 오빠의 재수 비용 때문에 전남대를 포기하고 장학금을 주는 타 도시의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돈 걱정 없는 넉넉한 집안의 판사 아들로 태어난 영성은 “세상이 그렇게 바기는 아들”(53쪽)이었지만 여자 옷을 입는 것을 즐기고 “시집을 읽고 머리를 기르는”(74쪽) ‘이상한’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처럼 군대에 보내진다. 일본인 할머니와 무당 엄마를 둔 미선은 “더러운 피라고 괴롭힘”(73쪽)을 당하며 자랐고 결국 “죄를 열심히, 말할 수 있는”(73쪽) 수녀의 삶을 선택해 신학대에 진학한다. 광주라는 비극 이전에 이들은 이미,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난받아온 존재들이었다 할 수 있다.

‘스스로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지지해주던 이들의 관계가 죽음으로, 정신이상으로, 자살로 비극적 끝장을 맞게 된 것은 이들이 1980년 5월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가 그러한 비극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그 자명한 사실 자체가 이 소설 강조점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두드러지는 점은 광주라는 비극을 넘어 이들의 공동체가 유지·확장된다는 사실이다. “성별이분법이나 이성애규범성, 혈연중심주의의 강고한 경계를 교란하는 존재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꾸려나가는 모습”¹⁷⁾이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교코와 교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그곳에 있지 않았”(80쪽)던 경자와 영소의 존재라는 점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른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소수자성의 표지를 덧붙이는 이러한 기획이 이들을 희생자이자 피해자의 자리에 강력하게 고정시키는 위험한 장치로만 활용되지 않는 것은 이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혜숙이 죽고 미선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이후 경자는 군대에서 나온 영성과 함께, 소영성의 이름을 따서 영소라고 이름을 지어준 혜숙의 딸을 돌보게 된다. 오래전부터 영성을 사랑했던 경자는, 모부의 집을 나와 자신이 원하던 대로 머리를 기르고 여자 옷을 입고 좋아하는 시집을 읽으며 지내게 된 영성이 자신과 함께 “다른 봄”(77쪽)을 맞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영성은 결국 자신이 원하던 삶을 찾는 일에 실패한다. “난 그냥 나예요. 광주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냥 나라고요”(77쪽)라며 육설 섞인 잠꼬대를 하던 영성은 “경자야,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야. 다 잊어. 다 잊고 살아가”(79쪽)라는 편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경자는 영성이 다른 삶을 꿈꾸었던 오키나와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홀로 영소를 키운다. 오키나와라는 “버려진 땅, 소외받은 땅”(93쪽)에서 경자는 “쿄코라 불렀던 코지 상”이 되어 영성이 바랐던 ‘다른 삶’을 대신 살아내고, 영소는 그곳에서 5·18을 연구하는 학자로 자란다. 그리고 연구차 오키나와를 방문한 경아에게 “신학대를 다니던 중 5·18을 겪으셨고 그 충격으로 하룻밤 만에 머리가 하얗게 센”(94쪽) 재조 일본인의 손녀에 대한 이야기, 즉 미선의 소식을 우연히 듣기도 한다.

미선의 소식이 몇 겹의 ‘사람들’을 거쳐 오키나와의 경자와 영소에게까지 도달한다는 점은 미약한 자들의 ‘스스로 공동체’가 광주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을 통과하고서도 유지된다는 점을, 오히려 광주를 구심점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박솔피의 소설에서처럼 한정현의 「쿄코와 코지」에서도 광주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로 작용하는바, 이러한 매개를

17) 김보경 · 한정현 인터뷰, 『소설보다 여름 2021』, 문학과지성사, 2021, 219쪽.

통해 한정현의 소설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젠더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폭력들이 교차하는 장면을 정밀하게 포착해낸다. 이른바 한정현 소설이 그리는 “끝나지 않은 과거가 이어지는 것”(61쪽)으로서 ‘광주’는 국가폭력이라는 말로 몽뚱그려지는 거대한 폭력의 세밀한 실상들이 확인되는 장이며,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오갈 데 없는 처지”(93쪽)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구심점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5·18의 정치적 상상력을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증명하는 소설의 한 사례로 읽힐 수 있다.

“그런데 엄마는 5월 18일에 어디에 있었어?”(66쪽)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엄마”(86쪽)라고 말해보는 영소는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광주를 겪은 세대는 아니다. 그는 광주를 기록으로 학습한 세대이다. 일본에서 광주를 연구하고 있는 영소는 경아가 전해준 미선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조선적 재일 남편과 결혼했다는 그녀가 겪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광주 이후’의 자신 역시 엄마의 말처럼 ‘끝나지 않은 과거’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학창시절에 어울리던 친구들과 함께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 동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성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럽”(96쪽)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이, 5·18을 연구하며 느낀 고통의 정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 이후’의 세대에게 5·18을 다룬 소설들이 강조하는 윤리가 주로 살아남은 자의 죄책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교코와 교지」는 ‘광주’를 매개로 하여 지금-여기의 우리가 여전히 주고받는 진행 중인 폭력에 대해 말한다는 점에서 5·18 소설의 윤리를 다른 방식으로 재현한 작업이라 평가될 만하다. 광주의 그곳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폭력에 의해 훼손된 ‘광주’ 그 자체이기도 하고, 광주에서 오랫동안 잊힌 사람들의 존재이기도 하며, 여전히 우리가 주고받는 차별과 혐오의 폭력이기도 하다는 점을 한정현의 소설은 정확한 실감을 통해 전달한다. 포스트 메모리 세대가 번역하는 ‘광주’의 잔혹성은 경자가 영소에게 남긴 마지막 말, 즉 “사람은 잊고자 하는 것에 보복을 당하기 마련이다”(100쪽)라는 전언으로 정확히 설

명된다.

덧붙여 이 소설은 ‘오월 광주’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새롭게 제안하는 소설로도 그 의미를 따져볼 수 있다. 주지하듯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항쟁에서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남아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삶을 지속했던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심지어 죽은 자의 영혼까지도 5월 광주의 주체로서 환기시켰다면, 한정현의 소설은 그 목소리들을 한층 더 다층화해서 보여준다. 특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영성과 미선의 존재는 특별히 주목해볼 만하다. 영성은 광주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손쉽게 이분화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압군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5·18의 가해자로 낙인 찍힌 그가 ‘남성답지’ 않다는 이유로 오히려 군대에서 모진 학대를 당했으며 결국 ‘광주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로 남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5·18 군집 자살의 사회적 원인과 과정을 살핀 김명희의 연구를 참조하자면 5·18 생존자의 자살 유형은 ‘숙명론적 자살’과 ‘저항적 자살’로 나뉘는 바, 영성의 경우는 이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군대 내 구타나 가혹한 명령 체계, 조직문화,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택한 특별한 경우, 즉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경로를 보이는 사례 역시 국가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위 연구는 간단히 언급하는데¹⁸⁾ 이 소설 속 영성의 사례로부터 이러한 5·18 연구의 공백에 관한 상상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한편, 작품 속 경아의 연구가 지시하듯, 미선은 5·18의 공적 자료대부분이 남성들의 역할에만 주목해왔다는 문제적 사실을 새삼 환기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루 아침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미선, 즉 베로니카 수녀는 5·18의 현장에 남성 신부들 말고도 “수녀들도 계시고 성당에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95쪽)다는 자명한 사실을 일깨운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다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배제하며 살았다는 걸 깨달”았

18) 김명희, 「5·18 자살의 계보학 - 치유되지 않은 5월」, 『경제와사회』 126, 2020년 여름호 참조.

다고 자책하는 경아의 말을 들으며, 영소는 바로 “나와 같은 존재”가 것처럼 ‘불편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주지하듯 “여성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5·18항쟁’에 참여하였으나, ‘오월 광주’를 재현하는 서사에서 호명된 것은 ‘여고생(딸)’ ‘어머니’ ‘아내’ ‘가정주부’ ‘술집 여종업원’이” 거의 전부였다. 항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들은 남성 활동가들과는 달리 대부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5·18’의 서사가 저항의 기억으로 의미화될 때 ‘여성’의 장소는 (...) ‘어머니’ 혹은 ‘누이’로 국한되면서, 다른 ‘여성’의 장소는 지워지며, 이러한 사정이 광주의 서사뿐 아니라 국가폭력을 고발하거나 이에 대한 저항을 서사화하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반복되는 전략이라는 지적¹⁹⁾에서, 대부분의 광주 재현의 소설들은 자유롭기가 힘들다. 그런 점에서 「교코와 교지」의 인물 설정은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소수자의 표지를 덧붙였다는 점에서 다소 작위적이라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의도에 좀더 주목해볼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이것은 나, 김영소의 기록이다. 김영소의 기록엔 그러나 김영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 말에서 잠깐 나는 머뭇거렸다. 김영소의 기록?

이것은 교코라 불렀던 교지 상, 김경자 씨의 기록이다.

김경자, 호적상 한자 표기는 金京子, 1958년 1월 30일 전라남도 구례 출생. 동명중학교와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졸업. 그러부터 3년 후 광화문 재수 학원에서 대학이 아닌 또 다른 학원으로 다시 자리를 옮긴다. 그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제하는 나도 모른다. 다만 이미 그때 나는 갓난아기로 존재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도, 엄마가 나의 아버지라 말한 사람도 나를 생물학적으로 낳아 준 사람들은 아니었다.

(...)

이것은 나 김영소가 엄마인 김경자 씨를 써 내려간 기록이 될까. 아니면 기억이 될까. (98~99쪽)

19) 김영희, 「5·18 광장의 기억과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한국여성연구소, 2018, 김형중·이광호 엮음, 앞의 책,

이 소설의 마지막에 붙은 5·18 연구자 영소의 에필로그는 「쿄코와 교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모로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는 김경자의 생애사이며 동시에 김영소의 진행중인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이자 “기억”이다. 김경자가 홀로 겪은 사건을 김영소가 일방적으로 전달받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경자의 생애가 김영소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형태로 씌어지고 있다. ‘광주’ 이전과 이후로 이들의 삶은 연결되고 확장된다. 피해자의 남은 가족이라는 점에서 김영소의 삶이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당연하지만 “갓난아이로 존재”했던 영소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몰랐던, 오히려 김경자의 증언 이전에 5·18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광주를 접한 연구자이기도하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메시지는 여러 겹으로 확대된다. 영소는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매개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쿄코와 교지」는 5.18의 당사자(피해자)와 비당사자(연구자)를, 세대 간의 간격을, 사건 이전과 이후를, 여러 인물의 ‘생애사’를 통해 강력하게 연동시킴으로써 포스트 메모리 세대가 광주라는 재난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한 인간의 이후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사건 이후,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 사건이 한 인간의 전 생애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폭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김경자라는 인물의 전 생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광주 이전과 이후를 연결시키는 「쿄코와 교지」는 5·18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일이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생애사를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5·18이라는 국가폭력이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자들의 삶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증언하고 기억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이 여러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소멸되어 없어지더라도 ‘오월 광주’가 행한 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포스트 메모리 세대의 작가들이 증명해내고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5·18은 1980년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화의 과정을 거쳤다. 임철우의 『봄날』(1997~1998)처럼 왜곡되고 은폐된 사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기억투쟁의 작업으로서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극사실적으로 복원되기도 하였으며,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의 경우처럼 5·18에 대한 재현의 가능성과 윤리가 진지하게 사유되기도 하였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3)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이 현재로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색한 작업이었다. 이 소설을 비롯하여 2010년대의 초반에 쓰여진 일련의 광주 재현의 서사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한국 사회의 정치적 퇴행에 대한 저항의 작업들로 의미화되기도 하였다. 이들 소설들이 강조하는 정념 역시 죄책감에서 복수심 등으로 진화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광주 이후 태어난 포스트 메모리 세대의 작가 박솔피와 한정현의 소설을 읽으며 광주 재현의 서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박솔피의 「그럼 무얼 부르지」는 광주를 다루는 서사 중 예외적으로 피흘리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광주 출신의 '나'는 버클리 대학의 한 카페에서 영어로 된 자료를 통해, 그리고 여행차 방문한 일본의 한 술집에서 '요슈 시티'라는 노래의 제목을 통해 '광주'와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 이제는 고향에 살고 있지 않은 '나'는 외국에서 온 지인과 함께 5·18의 30주기에 맞춰 광주를 방문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광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포스트 메모리 세대 '나'의 당혹감과 난감함이다. 이러한 난감함은 무심함이기보다는 '광주'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막연한 거리감에 가까워보이는데, 이는 그 엄청난 비극을 직접 겪지 않은 비당사자 세대의 최소한의 윤리로 읽히기도 한다. 5·18의 재현 불가능을 세계사적인 혹은 세대 간의 '번역'의 문제로 확장하는 이 소설은 5·18 서사의 새로운 윤리를 점검한다고도 할 수 있다. '광주 이후' 민주화 시대를 맞은 한국에서 엄밀

히 말해 ‘광주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광주 사람이 아닌 것만 같다’는 감각이 점점 ‘광주 사람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라는 비당사자 세대의 체념과 무관심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무얼 부르지」가 제기하는 문제는 의미심장하다. 이 소설은 ‘우리가 광주에 대해 무얼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광주의 번역 혹은 계승의 문제를 사유한다.

한정현의 「교코와 교지」는 5·18의 현장에서 살아 남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은 김경자의 일생을 기록한 이야기이다. 김경자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통해 광주의 현장에서 스물 남짓한 나이에 총에 맞아 죽었거나 그곳에서의 트라우마로 정신이상이가 되었거나 자살을 했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죽은 친구가 남긴 갓난 아이는 경자의 딸로 자라 5·18 연구자가 되어 있다. 「교코와 교지」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있는 광주 재현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광주의 피해자들이기도 하지만 고질적인 젠더 부정의, 견고한 성별이분법,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신화의 피해자들이다. 결국 이 소설은 ‘오월 광주’가 예외적인 비극이기도 하지만 혐오와 차별의 인간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비극적 사태를 통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교코와 교지」는 광주에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이기보다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생애를 전달하고 있는 피해자와 연루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갈무리하는 5·18 연구자 김영소가 희생자와 핏줄로 연결된 가족이기도 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한데, ‘기록’과 ‘기억’의 경계를 흐리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교코와 교지」는 당사자와 비당사자, 즉 광주를 직접 체험한 세대와 포스트 메모리 세대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월 광주’의 비극이 결코 화석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작가는 강조하는 듯하다.

박솔피와 한정현의 소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광주’를 구심점으로 하는 ‘연결’에 관한 것이다. 박솔피의 소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디서든 ‘광주’와 마주할 수 있다는 우연들을 통해 ‘광주 이후’ 세대에게 ‘오월 광주’

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다. 한정현의 소설은 광주의 피해자들이 이루는 미약한 공동체를 그려낸다. 나아가 광주 이전과 이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혐오와 배제의 인간 역사를 그려내면서 ‘오월 광주’를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일이 요청되는 이유를 상기시킨다. 포스트 메모리 세대가 그리는 광주의 서사는 ‘오월 광주’를 화석화하거나 신화화하는 일과는 적어도 거리가 먼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솔피, 『그럼 무얼 부르지』, 민음사, 2014.
한정현, 『교코와 교지』, 문학과지성사, 2023.

2. 단행본

- 곽승연, 『오월의 정치사회학』, 오월의봄, 2023.
김형중 · 이광호 엮음,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문학과지성사, 2020.

3. 논문

- 김명희, 「5·18 자살의 계보학-치유되지 않은 5월」, 『경제와 사회』 126, 2020 여름호.
김보경 · 한정현 인터뷰, 『소설보다 여름 2021』, 문학과지성사, 2021.
김영희, 「5·18 광장의 기억과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한국여성연구소, 2018.
김정한, 「절대공동체, 반(反)정치의 신화」, 『사회과학연구』, 20(2),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김 향, 「국가의 적이란 무엇인가?: 광주 기억과 국립묘지」,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문학과지성사, 2020.
김홍중, 「탈존주의(脫存主意)의 극장」, 『문학동네』, 2014 여름호.
이지훈, 「한국 5·18 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 서울대 석사, 2022.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 권여선의 『레가토』(2012)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3), 대중서사학회, 201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 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50(2), 2007.
최정운 · 임철우, 「절대공동체의 안과 밖-역사, 기억, 고통 그리고 사랑」, 『문학과사회』, 2014 여름호.

Post-Memory Generation and the May 18

Focusing on Park Sol-moe's "What Shall We Say Then?"(「그럼 무얼 부르지」) and Han Jeong-hyeon's "Kyoko and Kyoji"(「쿄코와 쿄지」)

Cho Yeonjung*

The Gwangju Uprising, one of the most tragic events in modern Korean history, has undergone various processes of narrative representation since the 1980s. As part of the struggle to reveal the truths of the distorted and concealed events, efforts have been made to reconstruct the occurrences in Gwangju with extreme realism.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ies and ethics of representing the events of May 18 have been seriously contemplated. A series of narratives reimagining Gwangju, written in the early 2010s, have been interpreted as acts of resistance against the political regression of Korean society during that period. These novels depict evolving emotions, ranging from guilt to a desire for vengeance. This essay aim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the narratives of Gwangju representation have evolved with a sense of contemporaneity by examining the novels of post-memory generation authors, Park Sol-moe and Han Jeong-hyeon, who were born after the Gwangju Uprising.

Park Sol-moe's "What Shall We Say Then?"(「그럼 무얼 부르지」) is an exception among Gwangju-related narratives in that it does not directly depict victims who suffer and bleed. Instead, the novel repeatedly portrays the confusion and discomfort of the post-memory generation, particularly the protagonist's uncertainty about what should be said regarding Gwangju. This discomfort can be explained by the vague sense of distance felt by a generation that did not directly experience the event, which may be understood as a

*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imal ethical stance for those not directly involved.

Han Jeong-hyeon's "Kyoko and Kyoji" (『쿄코와 쿄지』) features characters who are not only victims of Gwangju but also of systemic gender injustices, rigid gender binaries, and the myths of nationalism and statism. Ultimately, this novel emphasizes that while the Gwangju Uprising was an exceptional tragedy, the history of human hatred and discrimination continues and is often reinforced by such catastrophic events. The novel's significance lies in its role as a record on behalf of those who are now "unable to speak," rather than as a direct testimony of the Gwangju victims. "Kyoko and Kyoji" seeks to blur the divide between witnesses and non-witnesses, namely between those who directly experienced Gwangju and the post-memory generation, underscoring that the tragedy of May 1980 cannot be fossilized.

A common theme in the novels of Park Sol-moe and Han Jeong-hyeon is the notion of diverse "connections" centered around Gwangju. Park's novel raises questions about how the post-Gwangju generation should remember May 1980 by depicting the chance encounters and rediscovery of memories that occur in unexpected places. Han's novel, by illustrating the ongoing history of human hatred and exclusion before and after Gwangju, persuasively argues for the continuous relevance of the Gwangju Uprising in contemporary discourse. Therefore, the narratives of Gwangju representation by the post-memory generation are distant from fossilizing or mythologizing the events of May 1980. Instead, these narratives evolve to consistently connect the tragedy with the present, urging society to consider how these historical events continue to shape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Key words : May 18 Gwangju Uprising, Representation, Post-Memory Generation,
Direct Participant, Indirect Participant, Translation